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공범 현직 경찰 긴급체포

7년전 현금지급기 강탈도 공모

미제사건 5건 연관 가능성도 수사

여수 삼일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을 함께 저지른 여수경찰서 삼일파출소 김모(44) 경사와 자영업자 박모(44)씨가 7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낮엔 경찰, 밤엔 도둑=경찰은 두 사건 외에도 5건의 미제 사건에 두 사람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여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경사가 '낮에는 경찰, 밤에는 도둑'이었다는 것이다.

26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와 박씨가 "지난 2005년에도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둘은 지난 2005년 6월22일에도 여수시 미평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 반대편 식당 벽을 드릴 등으로 뚫어 현금 879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미제로 남겨놨으나 박씨를 검거해 DNA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씨 등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은 김 경사가 지난 2002~2007년, 2009~2011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수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경사가 당시 사건은폐나 수사 방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달 전부터 삼일우체국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김 경사는 지난달 29일 방범 진단을 핑계로 금고와 건물 내 CCTV 위치를 촬영했고, 이 사진을 박씨에게 건넸다. 그리고 지난 8일 밤 11시22분께 김 경사는 망을 보고 박씨는 범행 3일 전 숨겨둔 용접기 등으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213만원을 훔쳤다. 김 경사의 '도움'으로 건물 내 CCTV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들이 훔친 현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둘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각자 다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직 경찰관이 절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지휘계통의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모 범죄 더?=여수경찰은 두 사람이 2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 2005년 당시 비슷한 유형의 미제사건 5건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5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현금지급기 1700만원 도난사건, 지난 2005년 8월 여수 모 병원 이사장실 금고 절도 사건, 지난 2006년 1월 여수시 안산동 축협 현금지급기 992만원 절도 사건 등이다.

지난 8일밤 집을 나서고 있는 김 경사.

모두 현금지급기를 노린 공통점이 있고, 미평동 현금지급기 절도 사건과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경찰은 의혹 해소를 위해 김 경사와 박씨가 미제사건들에도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낮엔 경찰, 밤엔 강도' 김 경사는

오락실 업주와 통화… 감찰관리 대상

절도범이지만 7년간 현직 경찰로 일해온 김 경사는 지난해 오락실 업주와의 관계가 의심돼 감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지난 1992년 고흥에서 순경으로 경찰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1995년 여수로 발령나 최근까지 여수에서 일했다.

최근 10년 중 5년은 여수경찰서 강력계에서 형사로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오락실 업주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삼일파출소로 인사조치됐고 감찰 관리 대상이 됐다. 형사과 근무 당시에도 내부적 평가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박씨와의 관계는 15년 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박씨는 이후 심부름센터, 견인업체, 분식점 등의 사업을 하면서 김 경사에게 다른 범죄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사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들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두 사건 모두 호기심 때문에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김경사는 최근 휴대전화 대리점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3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사업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의 아내가 맞벌이를 하고, 개인적 금전관계도 비교적 깨끗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8720〉 김종두

비리재단 '횡령본부'는 병원 입원실

교비 등 1004억 빼돌린 이홍하 이사장 등 4명 구속기소

1000억원대의 교비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학재단 이사장과 대학총장 등 6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이 사들인 병원 입원실에 법인 기획실을 만들어 전국에 분산돼 있는 대학과 건설업체의 회계를 통합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양 한려대, 광양보건대, 서남대, 신경대 등 4개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교비 등 100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 설립자 이홍하(74) 이사장과 소속대학인 서남대 김응식(57) 총장, 신경대 송문석(58) 총장, 이 이사장의 친척이자 법인 기획실 관리자 한모(5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산하 대광여고 김모 행정실장,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이모씨 등 2명도 각각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한려대, 광양보건대, 전북 서남대, 경기도 신경대 등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직접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가로챈 돈 중 12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고,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차량유지비나 생활비 등으로 17억3000만원을 썼다.

또 적자에 허덕이는 서남대 남광병원에 214억원, 대출원리금 상환에 284억원, 부동산 매입에 71억원, 벌금 및 변호사 비용으로 25억6000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송 총장은 이사장과 공모해 각각 교비 330억원, 15억원을 횡령한 혐의, 이 이사장의 외조카인 한씨는 이 이사장의 횡령에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다.

이 이사장은 고등학교 생물교사로 재직하면서 목욕탕을 운영해 그 수익금으로 지난 1980년 광주에 모 여상을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7개의 학교법인과 산하에 8개의 고교와 대학을 설립해 운영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사랑의 쌀 전달

26일 광주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옥외광고협회가 기탁한 쌀 20kg들이 100포대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차에 옮겨 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노 전대통령 딸 징역 6월 구형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이 정해진 외화 취급 기관을 거치지 않고 무신고 외환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햇살론' 미끼 수수료 19억 챙겨

대출사기단 8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면서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월부터 서울 광진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고객 2000여 명에게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대출받게 한 뒤 수수료 19억 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고금리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사금융권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도 조정해주겠다며 햇살론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의 18~20%를 수수료 명목으로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청 기능직 횡령액 1억4천만원

감사원, 검찰 고발키로 강진 9급 5천만원 유용

감사원은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광주시 동구청 기능직 공무원 임모(여·44)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26일 "감사원이 동구청 기능직 공무원 임씨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감사원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광주시 본청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임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청 급여담당인 임씨는 최근 수년간 공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에서는 군청 9급 공무원이 공금 수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자체감사결과 적발돼 형사고발됐다. 강진군 감사결과 송모(35)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공금 500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 2011년 6월 14일부터 청자박물관 토요경매와 청자빚기 체험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요경매 작품대금 통장과 체험료 대금 통장에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에 여러 번에 걸쳐 다시 재입금해 통장 잔액을 맞춰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아내·내연남 탔다" 오인 흉기 위협

쌍나팔

○…30대 여성이 탄 차량을 아내와 내연남이 탄 차량으로 오인하고 가로 막은 뒤 신문지로 감싼 흉기를 꺼내 위협한 40대 남성이 협박 혐의로 경찰서행.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41)씨가 지난 25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골목길에서 B(여·35)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포장하던 A씨가 포장하던 칼을 들고 포장지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B씨의 차량을 아내와 내연남이 탄 차량으로 오인하고 꺼내보인 것 같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